

## 광주 가전로봇 기지 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광주에서 지능을 가진 가전(家电)로봇이 생산될 전망이다.

THARO(Total Home Appliance Robot 통합가전로봇)로 이뤄지어진 이 로봇은 기존 생활가

### 정부 실용화계획 긍정적

####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

전기기에 지능·통신·이동기능을 부가·전문적으로 가사를 해결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전로봇 생산을 위해 지난 4월 '가전로봇 실용화사

업 워킹그룹'을 구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예산(2006년~2010년) 150억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최근 과학기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전로봇 실용화사업 워킹그룹'은 전남대 박종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와 단장을 맡았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한국광기술원·삼성광주전자·조선대 등 7개 연구기관 14명의 과학자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킹그룹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삼성광주전자와 대우 일렉트로닉스·캐리어 등으로 인해 국내 최대 생활가전 집약지 및 제조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가전로봇 생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가전로봇 사업이 승인될 경우 오는 2006년 청소·공기청정로봇 출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집안의 모든 가사를 담당할 로봇이 생산될 전망이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설립 만장

- 김종두



걸작인지, 졸작인지는 두고봐야...

## 광주에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 지방국세청·세관 등 입주기관 총 10개

#### 1만5천평 규모, 907억 투입...내년 착공

예 907억원을 투입, 연간 건설 1만5천 500평 규모의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청사는 내년초 착공돼 2008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건물 관리 등에 낭비요소가 많다고 판단, 한 지역에 단일 건물을 지어 입주시키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천평의 부지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할

기관은 모두 10곳으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예산강유역환경청,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광주출장소, 국립식물검역소광주출장소,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이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2년째 협동청사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시·도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유치 경쟁자치단체인 나주시가 입장을 달리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합동청사 광주 건립에 대해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 협동청사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며 "이 문제를 놓고 전남도는 물론이고 광주시와도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기자 kihh@kwangju.co.kr

함평 나비축제 등 5개 전남 우수축제

전남도는 함평·나비축제, 보성 디향제, 담양 대나무축제, 영광 앙안문화축제, 영광 법성포 단오제 등 5개 축제를 상반기 전남지역 우수축제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이를 5개 축제를 2006년도 문화관광 축제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에 추천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전남 도내 시·군에서 개최된 15개 축제를 대상으로 우수 축제를 이같이 선정했다.

/오주승기자 jsoh@

## "대학 자율·분권 존중해야"

### 서울대 평의원회 성명

서울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에 대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립대 사이의 대립 양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사이에도 정책적 이견이나 이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도 5월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의 자율권 제고를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간혹 '억측'에 기초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가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저지' 방침을 밝혔던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늘의 시대는 현 정부가 표방하듯 '분권과 자율'이 최상의 원리와 가치가 돼 가고 있다"며 "정



서울대 평의원회 권익현 의장이 11일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의 정책논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대학입시 등 일련의 정책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전종여(민노·비례) 의원은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호화판이라

## '호화판' 전남지사 새 공관 면적까지 더 늘려 빙축

전남도가 '호화판' 논란을 빚어 온 남악신도시 전남지사 새 공관 면적을 즐그며 넓히려다 일부 도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전남도는 최근 '2005 전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에 관한 건'에 대한 승인을 전남도의회에 요청했다.

그 골자는 무안군 삼향면 신도정 인근에 신축할 지사 공관(전통 한옥형)의 대지를 745m<sup>2</sup>(225평)에서 1천 256m<sup>2</sup>(380평)으로 68.5%, 연면적은 337m<sup>2</sup>(102평)에서 419m<sup>2</sup>(127평)으로 24.3%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 부담도 15억 9천 500만원으로 1억 5천 500만원(10.7%) 증가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전종여(민노·비례) 의원은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호화판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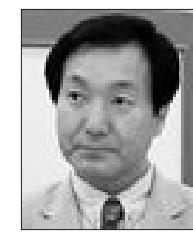
는 여론을 의식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차례로 나눠 슬쩍 끼워넣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도는 이미 지난해 9월 도의회로부터 공관 신축안에 대해 1차 승인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이어 "건축비가 평당 1천 원에 달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면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공관을 폐쇄하거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다른 자체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 의원도 전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전 의원의 수정정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으며, 도가 제출한 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개막특위장 복환모 호남대교수 선임



광주국제영화제 이사회(이사장 정환 담)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진의 일원인 복

환모(57·사진) 호남대 미대체영상학과 교수를 '광주국제영화제 개막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복씨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한양대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복씨는 제4회·5회 비엔날레 축제지문위원회를 지냈고 현재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와 집행위원회를 겸하고 있다.

이로써 광주국제영화제는 조직위원장과 개막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며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나 개막특위의 위원장에 기존 이사를 임명해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영화제측은 이에 대해 "특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개막위원회는 외부 전문 인력을 초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로 쇠

#### 세금계산서

No.24호

등록번호 409-42-66553

건설증기 이성님

사업장주소 광주시 북구

충돌동 672-4

상기 세금계산서를 분  
실공여부

광고점수안내

광주·원·원·회·원·회·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